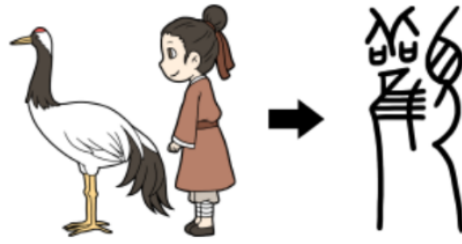


회의문자 ①

5(2)
-
11



觀

볼 관

觀자는 '보다'나 '보이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觀자는 瞞(황새 관)자와 見(볼 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瞞자는 隹(새 추)자 위에 큰 눈과 눈썹을 그린 것으로 '황새'라는 뜻을 갖고 있다. 瞞자는 큰 눈과 눈썹이 도드라지는 황새를 잘 표현한 글자이다. 이렇게 황새를 그린 瞞자에 見자를 결합한 觀자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황새처럼 넓게 '보다'라는 뜻이다. 이외에도 觀자에는 '용모'나 '모양'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는 황새의 자태가 의미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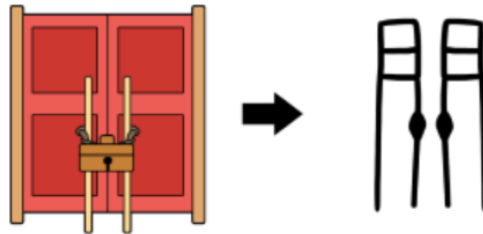
소전



해서

회의문자 ①

5(2)
-
12



關

관계할
관

關자는 '관계하다'나 '닫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關자는 門(문 문)자와 絲(실 사)자, 𠂔(쌍상투 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여기서 𠂔자는 의미와는 관계없이 모양자 역할만을 하고 있다. 關자의 금문을 보면 門자에 긴 막대기 두 개가 𠂔 걸쳐있었다. 그런데 막대기 중간에 점이 찍혀있다. 이것은 문을 열쇠로 잠갔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關자의 본래 의미는 '닫다'나 '가두다'였다. 소전에서는 열쇠와 빗장이 絲자와 𠂔자로 표현되면서 지금의 關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關자는 후에 '관계하다'라는 뜻을 파생시켰는데, 둘 이상의 친밀한 관계가 단단히 묶여있음을 뜻한다.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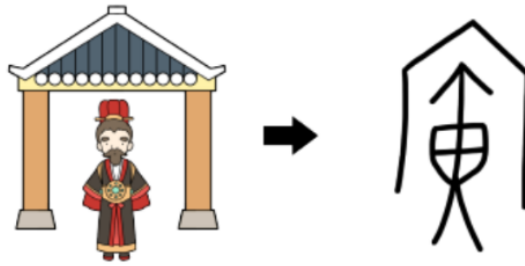
소전



해서

5(2)
-
13

회의문자 ①



廣

넓을 광:

廣자는 '넓다'나 '널찍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廣자는 广(집 엄)자와 黃(누를 황)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黃자는 허리에 누렁고 동근 패옥(佩玉)을 두른 황제를 그린 것으로 '누렁다'나 '황제'라는 뜻을 갖고 있다. 황제가 살던 궁전은 규모가 크고 넓었다. 그래서 廣자는 '황제'를 뜻하는 黃자에 广자를 결합해 황제가 살법한 크고 넓은 '대청'을 뜻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단순히 '넓다'나 '널찍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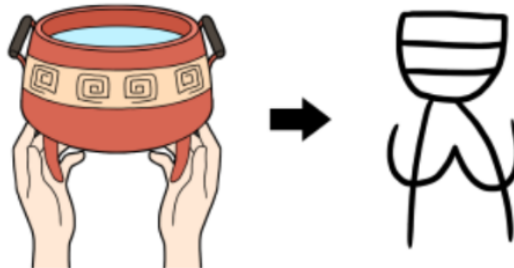
소전



해서

5(2)
-
14

회의문자 ①



具

갖출
구(:)

具자는 '갖추다'나 '구비하다', '온전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具자는 鼎(술 정)자와 升(받들 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금문에 나온 具자를 보면 양손에 술을 받쳐 들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술은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던 것이다. 여기에 升자가 더해진 것은 술을 양손으로 받들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신에게 제사를 지낼 준비가 완료됐다는 뜻이다. 그래서 具자는 모든 것이 준비됐다는 의미에서 '갖추다'나 '구비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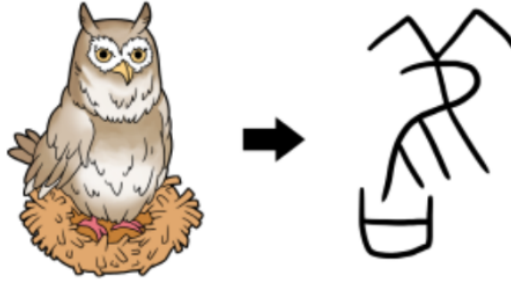
소전



해서

5(2)
-
15

상형문자 ①



舊

예 구:

舊자는 '오래되다'나 '옛'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舊자는 萑(풀 많을 추)자와 臼(절구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舊자는 본래 '수리부엉이'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수리부엉이는 짙은 눈썹이 특징이다. 그래서 갑골문에서는 새를 뜻하는 隹(새 추)자 위로 눈썹을 그려 넣었다. 또 아래로는 口(입 구)자가 있었는데, 이것은 동지에 있는 수리부엉이를 묘사한 것이다. 이러한 모습이 후에 萑자와 臼자의 결합으로 표현되었다. 다만 이러한 유래와는 관계없이 舊자는 久(오랜 구)자와 음이 같다는 이유로 '오래되다'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된 글자이다. 획이 복잡한 글자로 뜻이 옮겨지는 경우는 흔치 않기에 매우 이례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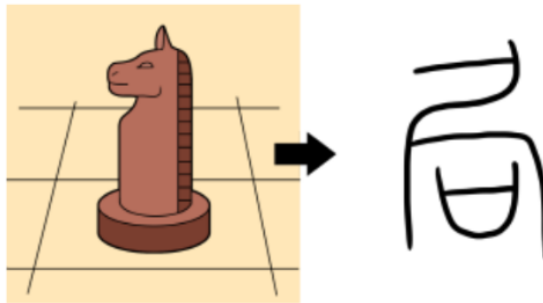
소전



해서

5(2)
-
16

회의문자 ①



局

판[形局]
국

局자는 '장기'나 '관청', '당면한 사태'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局자는 尺(자 척)자와 口(입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하지만 局자는 尺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소전에 나온 局자를 보면 尺자 아래로 口자가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장기판 위로 말이 얹어져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局자는 본래 장기나 바둑을 두던 '판'을 뜻했었다. 그러나 이기기 위해서는 두뇌 싸움을 해야만 한다는 뜻이 파생되면서 '당면한 사태'나 '재간'이라는 뜻이 생겼고 장기판의 판세를 빗대어 국정을 논의하는 '관청'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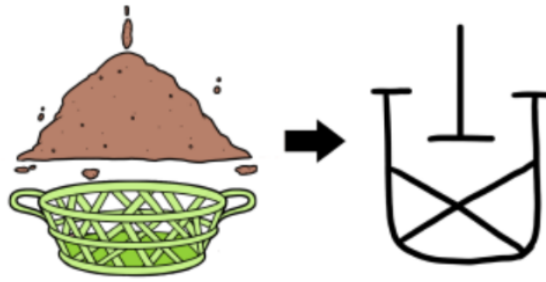
소전



해서

5(2)
-
17

회의문자 ①



基

터 기

基자는 '기초'나 '토대'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基자는 土(흙 토)자와 其(그 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其자는 버나 곡식의 껍데기를 걸러내던 키를 그린 것이다. 갑골문에 나온 基자를 보면 키 위로 土자가 𡵓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키나 바구니로 흙을 퍼 나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땅을 파고 기초를 다져야 한다. 흙을 퍼 나르는 모습을 그린 基자는 건물을 짓기 전에 터를 다진다는 뜻이다.

𡵓

갑골문

𡵓

금문

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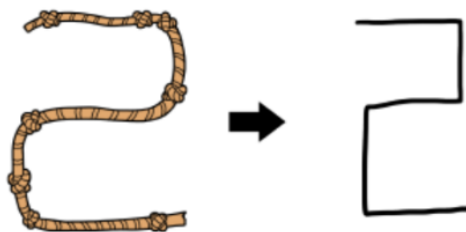
소전

基

해서

5(2)
-
18

상형문자 ①



己

몸 기

己자는 '몸'이나 '자기'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여기서 말하는 '몸'이란 '나 자신'을 뜻한다. 己자의 유래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일부에서는 사람이 몸을 구부린 모습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굽의 있는 새끼줄을 그린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런데 己자와 결합한 글자를 보면 새끼줄이 구부러져 있는 모습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만 己자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여전히 '나 자신'이라는 뜻을 가지게 된다. 己자는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상용한자에서는 뜻과 관련된 글자가 없다. 다만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새끼줄이나 구부러진 모양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니 상황에 따른 적절한 해석이 필요하다.

己

갑골문

己

금문

己

소전

己

해서

5(2) - 19	<div>회의문자 ①</div> <div></div> <p>念자는 '생각하다'나 '외우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念자는 今(이제 금)자와 心(마음 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今자는 입을 거꾸로 그린 것이다. 그래서 본래의 의미는 '입안에 머금다'였다. 念자는 이렇게 입을 거꾸로 그린 今자에 心자를 결합한 것으로 말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고 심장으로 들어가는 𠄎 모습으로 그려졌다. 옛사람들은 생각은 머리가 아닌 심장이 하는 것이라 믿었다. 그러니 念자는 머릿속 생각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표현한 글자이다.</p>								
생각 념:									
	<table><tr><td></td><td></td><td></td><td></td></tr><tr><td>갑골문</td><td>금문</td><td>소전</td><td>해서</td></tr></table>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5(2) - 20	<div>상형문자 ①</div> <div></div>								
能	<p>能자는 '능하다'나 '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能자는 곰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能자는 본래 '곰'을 뜻했었다. 하지만 후에 '능력'이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었다. 곰을 그린 能자가 왜 '재능'이나 '능력'이라는 뜻으로 바뀐 것일까? 곰은 재주가 뛰어나기에 재능을 뜻하게 되었다는 해석이 있다. 신성함을 상징했던 곰은 여러모로 탁월한 능력을 갖췄던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能자가 이렇게 '재능'과 관련된 뜻으로 가차되면서 지금은 여기에 灬(불 화)자가 더해진 熊(곰 웅)자가 뜻을 대신하고 있다.</p>								
능할 능									
	<table><tr><td></td><td></td><td></td><td></td></tr><tr><td>갑골문</td><td>금문</td><td>소전</td><td>해서</td></tr></table>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